

극한 상황의 1990년유업계

**낙농은 원래 어느나라든 수급문제를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인 계획과
조정을 강구, 시행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이 낙농정책의
상식이다.**

지난 1년간 유가공업계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한해를 보내는 처절한 경영환경을 겪어야 했다.

과잉재고에 허덕이는 어려움뒤에 다시 부족현상을 빚게 되는 양상을 1979 / 1980 또는 1987 / 1988의 경우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다. 이번의 주기적 변동폭도 그 엄청난 규모와 전례없는 과잉도태 그리고 낙농산업내부의 경제원론적 수급원칙에 의한 자연적-인위적이 아닌-조정에 의해 정리되어 가는듯한 인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전례와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잉사태에 대한 수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부, 생산자, 유업체 모두가 긍정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왔다. 78 / '80의 과잉사태에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구매, 유대지불자금지원등의 조치가 선행되었고 87 / 88에는 우리나라 낙농사의 커다란 전환기적 획을 그은 시유 단위변경(180ml → 200ml, 이 변화는 흔히 재래식 도량법을 미터법으로 바꾼것으로 미국이나 영국도 아직 바꾸지 못한것을 우리 유업체가 해낸것임), 각종 유제품의 원유사용량 증량, 학교급식확대, 수출, 정부 구매, 사료용전환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래도 잉여될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 계획적수단으로 계

이 만재
서울유유희동조합 지도부장

확생산(계획생산이란 용어가 사회주의적 체제의 것이라 거부감이 있어서 생산조절이란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였지만)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방법들은 모두 낙농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 확대해나가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상반기의 잉여사태에 대응한 유업계나 정부의 자세는 완전히 낙농 생산기반을 흔들여 놓은 최악의 조치로 돌변해 있었다. 정부의 수매계획은 89. 11부터 90. 7까지 다섯번이나 그 내용을 번복하면서 발표되었으나 막상 수매작업이 시작된 것은 이제 원유가 부족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8월부터 이었다. 그때까지 거의 10개월동안 낙농가들은 저능력우는 물론 정상우까지 도태할 것을 강요당하였고, 유업체들은 자기 내들 멋대로 법을 만들어 작년보다 많은 우유를 내는 목장의 우유는 집유를 거부하거나 분유로 지급하고 심지어는 검사(유지율은 물론이고 유량까지도) 횡포를 자행하여도 정부의 검사기관에서는 모른척하여 낙농가들은 그나마 한톨의 우유도 팔지 못할까 두려워서 불평도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원유생산량은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전망이다. 그것은 낙농가들의 생산소득분이 약 15~17% 결손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원론적 수급원칙에 의한 자연적조정”이라는 의미는 낙농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그것이 1790년에는 암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낙농가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낙농은 원래 어느나라든 수급문제를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인 계획과 조정을 강구, 시행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낙농정책의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과잉 → 생산기반위축 → 부족 → 수입 → 과잉 → 생산기반위축 → 부족 → 수입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해있다. 지금 당장 유업계와 제과업계는 불과 2-3개월전에 남는다



고 아우성치더니 이제 모자라니 수입하자고 야단들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유업계나 제과업계가 수입명분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수입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비싼국산원유보다 싼수입원료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그들의 본심은 그저 낙농가들을 반쯤줄여서 항상 모자라게 하고 수입원료로 몽땅대처해 버렸으면하는 것이다.

“수급원칙에 대한 자연적조정”을 한우의 경우 이미 경험한바 있다. 이미 그결과 한우의 자급율은 50%이하로 감축된지 오래다.

이와같은 악순환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입 유제품에 대한 창구일원화와 수입품 판매가격을 국내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그 차익은 낙농가의 소득 15~17% 결손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주어 낙농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낙농도 한우나 같은 꼴을 면치 못할 것이요, 결국은 이땅에 낙농은 자멸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낙농가들이 재물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상반기의 원유과잉시 유업체들이 자행한 횡포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자업자득은 하반기 부족시에 지체없이 표면화되고 있다.

원유가 남을때 가장 아쉬웠던 학교급식확대는 모자랄 때는 가장 먼저 배반당하는 악순환도 올하는 극심하였다. 모유업체는 일반시장의 우유가 부족하자 학교급식대상학교를 반으로 줄어버리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국민학생에 대한 기업주의 양심을 난도질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였다.

유업체 횡포에 시달린 낙농가들이 대개 협동조합쪽으로 물리게 되는 현상이나 또 웃돈을 더 없애주는 업체로 납유선을 돌리는 낙농가 무리들이 심각한 양상을 띄면서 유업계 전체를 전쟁사태로 몰아 넣었다.

몇몇유업체는 납유농가들이 워낙 대거 유출되는 바람에 회사운영의 존폐 위기까지 물리게 되자 수익의 거금으로 이동낙농가들을 매수하거나 유지방검사를 후하게 쳐주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 그결과 협동조합들에 대한 전국 유업체들의 점유경비, 즉 원료확보비용이 원유kg당 20~30원정도 더 지불되는 불상사를 낳고 그것이 또 유업체들이 내년도 초에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하였다.

이미 몇몇 유업체들은 유제품 가격인상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

이와같은 악순환은 낙농산업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자초케하고 소비자들로 부터 불신과 반감을 사게되어 결국은 낙농가에게 그 피해가 이전되는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원유가 남을때 가장 아쉬웠던 학교급식확대는 모자랄 때는 가장 먼저 배반당하는 악순환도 올하는 극심하였다. 모유업체는 일반시장의 우유가 부족하자 학교급식대상학교를 반으로 줄어버리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국민학생에 대한 기업주의 양심을 난도질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였다.

올해도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공동홍보도 유업체들의 비협조로 끝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대법원으로 부터 과대광고 허위 선전 판정패한 파스퇴르 유업에 대한 역공만 취하다 말게 되었다.

파스퇴르유업의 대법원 패소는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닌 서글픈 우리나라 유업계의 기형적 성장과정의 산물로 볼 수 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한 올해의 사건중 하나이었다.

파스퇴르우유에 대한 시비가 공식적으로 끝난것이 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나 낙농가 소비자 심지어 학자까지 혼돈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간단한것이다. 우유는 주요한 식량이고 그것은 모든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좋은 우유가 있다면 전국민이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농인의 의무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외국서는 1950년대에 이미 중단돼온 저온 살균법, 이중 가마솥에 우유를 중탕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방법 때문에 현대적방법인 HTST 또는 UHT 방식의 도입후 모든나라에서 거의 없어진 살균처리법이 잘못된 선전에 의해서 소비자 국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유소비 전체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자멸의 행위 밖에되지 않는 것이다. 그야말로 비도덕적 상행위가 싹트게한 책임은 낙농업계와 정부에 있다.

원유의 위생등급제도와 집유일원화를 통한 검사제도의 개선을 지체시킨것은 우리나라 낙농발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도덕적 유업체에 납유하는 낙농가가 낙농발전을 위하여 즉, 전체 낙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유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 낙농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낙농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함께 다져야 할 점이다.

낙농업은 어느 한사람, 어느 일부 낙농가의 영리만 위해서 전체 이익에 배반한다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끝내는 모두가 자멸하게 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년전 부터 예상되어온 코코아조정분유수입에 대한 유업계의 산업피해 구제신청 결과는 수입홍수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합의전에 제과업체들이 수입규제를 우려하여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로는 수입함으로서 낙농계로 하여금 배신감을 맛보게 하였다. 이사건은 낙농육우협회의 수입 제과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결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마무리되었고 낙농가의 단결된 힘이야말로 스스로 낙농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라는 점을 실감케 해주었다.

올해는 무엇보다 우루과이 라운드(UR)라는 우리농민을 가장 위협한 사건이 향후 유가공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해였다.

왜냐하면 특히 낙농제품들의 수입개방이란 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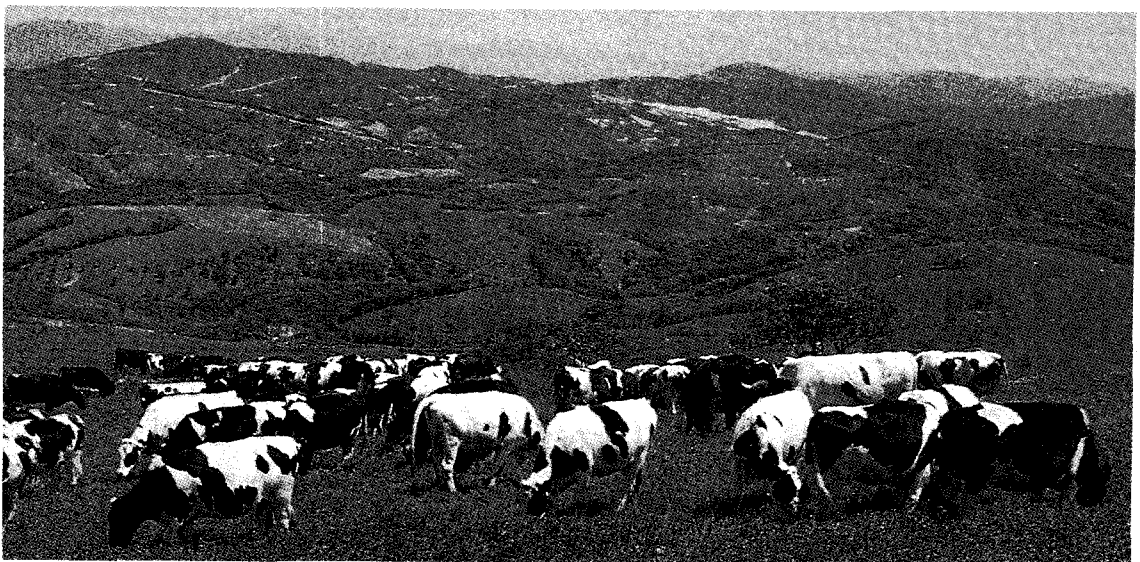
가공제품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고도의 기술 축적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칫 국내유업체들은 기껏원유나 액상, 요구르트 정도만 만들고 이익이 많이 생기는 가공제품들은 수입품에 압도 당하게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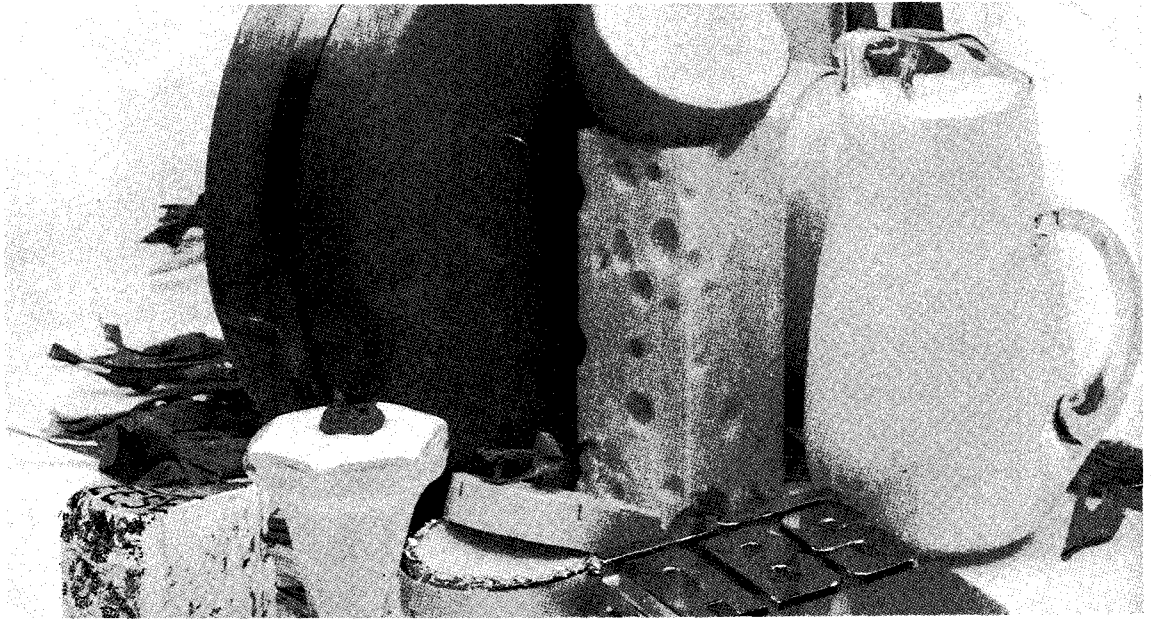
그 한가지 사례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호상요구르트 시장의 판도는 선진낙농국의 기술제휴제품과 국내 투자개발제품의 싸움에서 후자가 완전히 완전히 KO 패한 결과를 낳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시장상황은 UR협상이후에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거기서 우리 유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 ①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 ② 유질의 개선을위한 제도장치 확보
- ③ 원유수급의 안정에 의한 집유비용의 절감노력
- ④ 공장 경영의 체질개선
- ⑤ 유통체질과 혁명적 전환들이다.

①은 시장에서 직접경쟁을 위한 수단이며 ② ③은 제도적 지원에 의한 간접적 경쟁력제고이고 ④는 지금까지 원유확보와 시장확보, 즉 만들면 그냥 팔리는 공장운영 태도에서 팔도록 노력하는 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장 인력의 대폭적인 절감과 동시에 기술고급화, ③에 의한 가동률의 제고등이 필요할 것이다. ⑤는 '80년도 유대 13%인상시 공장제품 출고가격은 9%, 유통마진도 또 거의 50~60%인상되었던 결과에서 소비둔화를 자초하였고 그 피해는 결국 낙농가가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뼈저린 경험을 한바 있어서 낙농 산업 전체를 두고 이의 시정이 가장 아쉬운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현재의 유통체질은 과거 70년대 수요 폭발시대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시장개방이후의 시장성황은 소비자에 낮게 상품을 유통시키고 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약 2,00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는 약 60kg으로 전망되고 그것은 수요충족에 접근하는 규모이므로 그때는 일정한 소비시장을누가 더 점령하는냐는 상황으로서, 현재와 같은 유통체질을 가진 유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유업체의 또하나의 사건은 어떤면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또다른 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것으로 축협중앙회에 유가공업계 진출 계획 수립이다. 축협중앙회는

91년도 사업계획에 총 608억에 달하는 매머드 유가공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91~'96사이 6개년간 1~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청사진을 신고 이를 지난 11월 29일 총회에서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이 사업은 ① 원유의 확보 ② 기술인력의 확보 ③ 약 30%에 달하는 수요시장의 창출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립된 계획으로서 지난 20여년간 원유처리 및 가공시설이 없어서 항상 개인 유업체에 당하여온 지역 소규모 낙협이나 집유조합들로부터는 내심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가공 시장에 참여해온 낙협들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이익이 중앙회직영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서 중앙회와 회원 조합은 경쟁적 관계가 되고 낙협들의 유가공사업을 중앙회의 막대한 자금력에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앙회에 사료사업과 지역 축협의 사료사업 과도 흡사 한 것이다. 아무튼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지 향후 그 귀추가 매우 흥미있게 주목될 것이 분명하다.